



看護事故 判例의 法醫學的 分析 (I)

文 國 鎮
(고려의대 법의학교실)

序 論

醫學은 날로 發達되어 수많은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人類에 공헌한 바 크다. 反面 우리가 願하지 않는 意外의 돌발적인 事故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부수되어 많은 醫療人의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社會가 民主體制化 됨에 따라 國民들이 지니는 自由思想, 權利意識은 날로 向上되어 醫療에도 영향을 미쳐 醫療人和 患者는 平等하기를 願하게 되었다. 醫療에 있어서 平等하기를 願한다는 것은 患者가 醫療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며 醫療의 內容을 알고 싶다는 것이고 또 醫療事故가 發生되면 過去같으면 倫理的 또는 道義的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法的으로 責任을 추궁하는 法的解決萬能의 思想이 우리 醫療에도 반영되었다. 한편으로는 通俗的인 醫書의 법률, “대스메디아”를 통한 醫療相談 등은 醫療의 受容

날로 社會가 복잡화 됨에 따라 의료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도 빈번해진다. 의료인중 간호원은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횟수가 가장 많으며 이에 따른 의료사고도 자주 있게 된다.

간호원은 간호원과 관련된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한계등을 정확히 알아 두므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환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의 과표를 구명할 수 있다. 이에 본호부터 법의학의 권위자인 고려의대 법의학교실의 문국진교수의 글을 연재할 예정이며 또한 회원들의 문의상담에도 응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에 批判的인 경향을 불러 일으켜 國民의 醫療에 對한 價値觀에도 많은 變化를 초래하게 되었다.

現在의 醫療는 醫師單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게 多極化 되었으며 이에는 많은 醫療從事者의 協力으로 醫療가 圓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醫療에 있어서 看護員이 차지하는 比重은 자못 큰 것으로 醫療에 있어서 醫師와 看護員의 關係는 마치 바늘과 실의 關係와도 같다 하겠다.

따라서 大部分의 醫療의 執行은 看護員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看護員의 患者에 對한 不親切은 醫療 不信의 重要한 條件이 되는 것이다.

많은 醫療紛爭例에서 患者側의 呼訴는

「病에 對하여 이야기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心情을 지닌 가운데 醫療事故가 일어난다면 답답했던 것이 폭발되어 醫療紛爭化되는데 決定的인 原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患者와의 對話를 통한 疾病에 對한 說得 및 指導는 治療以上으로 重要한 것이다.

國民의 權利意識과 自由思想의 急激한 向上, 醫療에 對한 價値觀의 變化, 事故의 法的 解決萬能傾向 등은 醫療事故가 醫療紛爭化되는데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醫療實務者인 看護員의 역할은 많은 影響을 주게 된다. 即 醫療人은 醫學의 進步, 醫術의 發達, 法令의 改廢等 患者에 對한 義務乃至는 責任의 範圍가 流動的이고 變化性을 지닌 소용돌이 속에서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醫療人은 “終身研修”라는 時代的 要請을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77페이지에 계속>